

#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완)

##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E-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E-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에 나타난  
합리주의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서양의 문화를 지배하여 온 정신적인 배경 중 가장 근본이 되며 으뜸이 되는 것은 합리주의적 사고이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사람, 예술사자들은 이처럼 합리주의적 정신의 절대적인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실질적으로 진정한 합리주의가 꽃피워졌던 시기란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내곤 한다. 통념상 르네상스 및 근대의 건축을 가장 합리적인 시기의 건축으로 꼽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예술작품에 드러나는 진정한 합리성이라는 것은 그 정도에 있어 어느 시대의 건축, 예술에서든 좀처럼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근대 이후의 건축을 논함에 있어 그 기원을 밝히고 추적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론과 시각이 동원되고 분석자에 따라,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다양하여 지지만 그 기준점은 역시 합리성, 합리주의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과 배경, 원인은 외적으로 표현되는 작품의 성격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밑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적, 문화적, 역사적, 사회학적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지난 호까지 취급된 건축사는 이러한 합리주의적 현대건축을 낳은 근대적 전통의 관점에서 다루어

졌다. 이 중에서도 명료성과 고도의 단순성을 표방하는 순수형태미의 건축이 어디로부터 발원하였는가를 다루었는데 아이러니라 할 수 있지만 Le Corbusier의 금언 'L'architecture est chose de plastique. La plastique, c'est ce qu'on voit et ce qu'on mesure par les yeux... L'architecture est le jeu, savant, correct et magnifique des volumes sous la lumière. (건축은 조형적인 것이다. 조형적이라 함은 사람들이 보는 것, 그리고 눈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이란 빛 아래의 매스를 숨쉴고, 정확하며 웅장하게 연출하는 것이다)'<sup>1)</sup> 라는 말에서 정점을 이루듯 형태주의(Formalism)적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이것은 역사적 인과성을 설명하기 위해 채택한 효과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건축은 실용적, 구축적(構築的), 또는 구조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모든 예술분야 가운데서 합리성의 관념을 배제하기 가장 어려운 분야이다.

건축이 합리적 또는 이성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별기준의 실재 또는 부재에 기인한다고 보다는 건축 디자인의 총괄적 프로세스 가운데,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념 가운데 존재하는, 합리에 해당하는 판별기준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건축에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홀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것은 신고전주의 등과 같은 예술사적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사적으로 고찰해보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하고 정지된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역사적 국면을 지배한 무수한 관념들의 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관념형태의 변화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학적 인수 그리고 철학적 아이디어들의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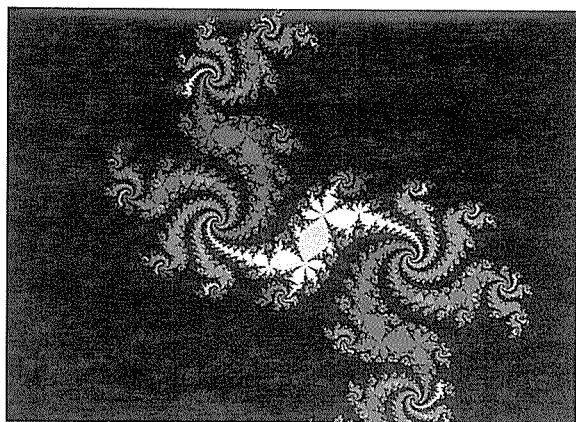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예술을 논할 때 이성에 의존하는 과학적 분별기준, 직감, 느낌 등에 의존하는 예술적 분별기준으로 판단하는 이분법적인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이분법적 방법론은 과학적 사고 내에서 작용하는 직감의 역할, 예술 및 창작활동 내에서 작용되는, 판단을 위한 지적인

1)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하나의 건축을 향하여), Flammarion, Paris, 1995, p.177-178. 이미 지적했듯이 정확한 이 책의 제목은 '하나의 건축을 향하여'이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영어본 'Towards a New Architecture'를 번역하여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로 알려져 있다. Le Corbusier가 책의 제목을 '하나의 건축을 향하여'로 정한 것은 각 시대는 고유한 하나의 건축을 가진다는 Zeitgeist(시대정신)적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 번역본을 보면 '건축은 유연한 것이다. 여기서 '유연한'이란 많은 눈이 보고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번역되어 정확한 의미의 전달이 어렵게 되었다. 장성수, 장성주 역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pp. 187-188 참조.

힘의 역할을 배제시켜버리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분리는 예술활동의 공정, 처리과정 가운데 여러 상이한 양상을 구분하는데 효과적이고 어느 정도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정리하면 대체로 이성/감각, 질서/무질서, 일반성/특수성, 필연/우연, 필연/자유의지 등 어느 정도 상동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을 하고 나면 무수한 관념들이 변화하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곧바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하나하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진다.

우리가 착수한 18세기 이후 지난 200년간 건축사는 위에서 나열한 일련의 두 가지 대립개념의 충돌사(衝突史)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철학사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우선 합리주의(rationalism)라 함은 이성(英: reason; 佛: raison 獨: Vernunft)에 입각한 것으로 reason의 어원은 '계산, 셈, 계산능력, 논리적 판단능력' 등을 의미하는 라틴어 Ratio로부터 유래한다. 그리고 합리주의(英: rationalism; 佛: rationalisme; 獨: Rationalismus)의 어원은 '이성을 지닌, 이성적 사유를 채용한' 등과 같은 의미를 지닌 라틴어 rationalis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생각할 때 합리주의란 이성에 입각하여 진실을 알아내고 입증하는 원칙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건대, 건축사적으로 고찰할 때 이것은 그리 단순하고 명쾌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우선 우리가 고찰을 시작한 18세기의 정신적 세계로 돌아가기 위하여 근원적인 고찰을 하자면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합리주의, 그리고 적어도 16세기부터 시작하여 영국을 중심으로 한 경험주의에 의한 대립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다. 여기서 경험주의는 글자 그대로 경험에



B. Mandelbrot: Self-Squared Fractal Dragon

의지하는 것으로 위에 나열한 이성/감성... 등의 항목에서 거론하는 '감각'과는 다른 것이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이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성은 질서, 기능을 위한 자율적 규정(rule), 또는 강제적 성격 및 복종의 성격을 띤 법칙(law), 원리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의 시각으로 볼 때 이성이란 세계 내에서의 직접적 경험 그리고 건축과 같은 praxis 또는 techn 사이에서 규칙이나 원칙으로써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당시의 합리주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이다. 여기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사이의 모순과 충돌은 선형성과 후험성으로 정의되는 두 가지 과학개념의 상이성, 충돌, 모순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선형적 사실이란 경험 이전에 인간에게 새겨진 것으로 불변하며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후험적 사실이란 경험에 의지하여 가변적이고 불안정하며 신뢰가능성이 낮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건축을 비롯한 예술분야에 있어 이성에 입각한 지식이 후험적으로 취득되면 경험적 사실은 선형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성적 지식에 토대를 둔 과거의 지식을 채용하는 관용적인 권위에 의존하게 되면 선형적 지식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신뢰의 가능성이 낮게 되기 때문이다.

언급되고 있는 이성적 사고 및 합리주의를 굳건히 지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과학(英, 佛: science: 獨: Wissen, Wissenschaft)의 개념이다. 과학이란 그리스어(에피스테메)를 라틴어 scientia로 옮긴 것으로부터 온 것으로 그 본뜻은 '지식'이다. 이 '지식', 즉 과학(science)은 신에 의해 인간의 지혜에 불어넣어져 간직된 본유적 생각, 즉 선형적인 아이디어를 말하므로 경험이나 귀납에 의하여 취해진 지식들은 이러한 권위에 반(反)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 하에서 Descartes, Spinoza, Leibnitz 등의 학자들은 본유적 아이디어, 즉 본질적인 지식을 추구하였다. 본질적 혹은 본유적 아이디어란 과거에 인간에게 계시된 신의 생각이며 따라서 최고의 권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건축가들이 추구하던 아이디어는 과거의 전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Vitruvius와 같은 존중하는 과거의 이론 및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건물에서 건축의 정통성을 찾는데 일조하였다.

당시의 건축이론은 로마시대의 Arisoteles, Horatius, Coceron 등과 같은 사람들의 텍스트로부터 유도

한 것들이었으며 신플라톤주의적 사고로부터도 동시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사상적 풍토에서 나온 당시의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자연의 모방'이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때 이상하고 모순적이지만 건축 및 예술품은 자연법칙의 연장이어서 자연을 모방 또는 재현하는 과정을 수반해야 했다. 다시 말하면 자연에의 접근이란 본유적 아이디어가 이미 드러난 과거의 예술-자연의 모방으로 생각되었다-을 모방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18세기 및 19세기에는 건축물이 building 과 architecture로 구분되면서 이러한 개념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과거의 개념이 혼동스럽게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론 및 비평의 시각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정의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산업화 및 과학의 발전에 의한 신재료 등의 발달로 기존의 '과학'에 대한 개념의 혼란과 새로운 건축적 기능성의 등장으로 새로운 개념이 출현하게 된 때문이다. 건축은 구축적(constructive)인 측면의 건물(building)과 이성에 입각한 소위 '과학적(scientific)' 건축물(architecture)로 구분이 되기 시작하였는데 구축적인 측면의 건물은 진실한 의미의 이성적 개념이 개입하여 재현적 기능을 만족시킴으로 architecture parlante(말하는 건축)의 성격을 지니게 된 반면 과학적 측면의 건물이란 감각, 감성이 전제되어 예술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남겨져 그 의미가 전도되어버린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John Wood the Elder 같은 사람은 건축과학(science of architecture)을 순이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건축예술(art of architecture)을 구체적인 원인이거나 이유에 근거하는 지식으로 보아 인간의 생활에 효용성을 적용하는 지식이



A. van Eyck: ESTEC

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사용한 과학과 예술을 분리하고 있는 개념은 현대의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다.

18세기에 이르러 Laugeir(로지에)는 선형적 이성이 경험 및 지각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이성은 최초의 건축-primitive hut-을 확증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더 이상 고대의 모델을 의존하지 않으려 하지만 아직도 그가 추구하는 진리와 이성은 불완전한 건축전통의 정화와 완성을 의식하고 있으며 그와 불가분 연결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고전주의 또는 신고전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화가, 조각가와 마찬가지로 건축가의 임무는 불완전한 외양너머에 감춰진 이데아의 모방에 있어서, 그는 건축역사에 의하여 제시되는 여러 복합적인 예를 분석, 파악하여 숨겨져 있는 유형(type)을 적발하는데 있다. 이상적인 건축은 자연현상과 같이 선형적이고 원초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로부터 전승된 전통적 건축에서 발견되는 이 당시의 이분법적 대립항목은 이성/환상(caprice)으로 확실히 구분되지만 이성은 홀로 우주의 법칙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주관적 경험과 동맹관계에 놓여진다. 경험은 더 이상 신에 의해 불어넣어진 최고의 권위체인 이성에 대해 반대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법칙의 존재를 증명하는 보충물일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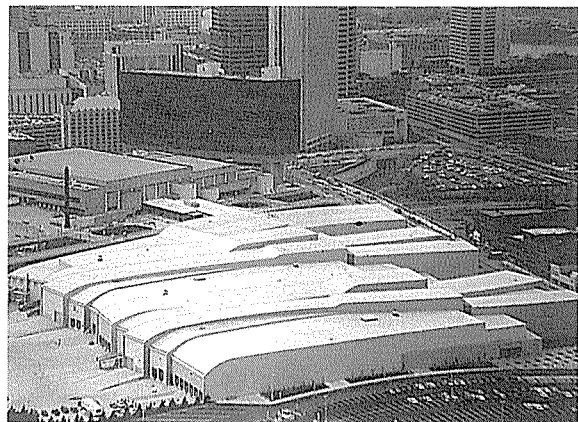
예를 들어 건축에 있어서 Carlo Lodoli같은 사람은 선구적 기능주의자로 취급을 받긴 하지만 순수한 경험주의자로 취급을 받기도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는 기능주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건축장식에 집착하였고 규범적이고 전형적인 것과 우연한 것들의 상이점들을 구분한 후 종합하려고 하였다. Laugier와 Lodoli의 합리주의는 바로크시대부터 지배하기 시작한 독단적이고 비속한 규칙들로부터 건축을 해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이성을 가지고 단순하고 영원한 자연에 환원되는 보편적 법칙을 창조하려는 노력이다.

한편 공리주의의 발달과 함께 합리주의와 고전주의의 연합에 대한 구속적 생각은 점점 희박해졌다. 과학적 이성은 형이상학보다는 오히려 기계적 효용성에 치우치게 되어 실행인(efficient cause)이 목적인(final cause)을 대체하게 되었다. 등귀하던 절충주의적 작품 및 공상적 작품에 대적할만한 진정한 합리주의적 이론들이 없었으므로 Durand, Legrand, Thomas Hope, Schinkel

등은 역사의 파노라마에서 실용성에 맞는 요소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들은 실제로 건축적 요소들을 역사에서 빌어와 구성(composition)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이고 훌륭한 방법론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18세기의 후반기에는 고전주의 건축에서 축조와 표현에 사이의 완전합일을 꾀하던 움직임이 와해되어 두 개념의 분리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움직임이 대표적인 것으로 미학적인 견지에서 이교적(異教的)이고 비합리적 건축으로 푸 대점을 받던 고딕건축 내에서 합리적 구축법칙을 발견한 구조적 합리주의의 등장이다. 구조적 합리주의는 적어도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8세기의 구조적 합리주의는 새로운 과학의 등장과 함께 기능주의적 분석, 즉 재료의 응력이나 효율성 등에 몰두하며 고전주의적 개념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였다. 이것은 19세기까지 발전하여 과학만이 진정한 지식의 제공자이고 진실로 믿어지는 어떤 사실이란 단지 과학의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한 Auguste Comte의 엄격한 실증주의의 영향 이후까지 발전, 지속되었다.

이 구조적 합리주의의 새로운 물결은 일종의 이상주의, 즉 경험주의적인 과학으로 환원할 수 없는 미에 관한 신고전주의의 영역으로 그 기준점을 가까스로 올려놓게 된 동기가 되었다. 과학이 건축 스터디를 위해 유용하지만 모든 것을 다 떠맡지는 못한다고 주장한 Léonce Reynqud(레옹스 레노), 건축은 장식된 구조이며 건축의 형태는 합리적 증명이 요구되는데 그 법칙은 자연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한 César Daly(세자르 달리)등의 주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사실을 실질적인 건축물로서 대변하는 것은 Henri Labrouste(앙리 라브루스트)의 Bibliothèque Sainte Geneviève(생뜨 주느비에브 도서관)을 들 수 있



P. Eisenman: Columbus Convention Center

다. 여기서는 현대적 기술과 재료를 고딕적 방식으로 엮어서 연출하고 있다. Henri Labrouste의 진실한 의도는 기술에 따라 건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도한 고딕적 건축을 손상함이 없이 새로운 재료 및 기술을 채용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고딕 부흥주의자들에게는 고딕건축이란 절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 아닌 고전주의의 대안물로서 여겨졌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인물 중 고딕 부흥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Viollet-le-Duc(비올레르 디크)으로 그는 구조에서 고딕의 진수를 보았고 그 구조적 원리와 요소들이 미래의 건축에 있어서 방법론적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Viollet-le-Duc은 건축의 발전과 발달은 기술의 발달과 연결되고 더 이상 건축의 형태는 영구한 역사적 형태의 어형변화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닌 내재된 기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고대의 '완전한 형태'를 배제하였고 합리주의는 고정된 것이 아닌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건축을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운명과 연결시키려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건축이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각에 호소하고 주관적 감각을 호소하기 위하여 합리성에 호소함으로 그가 실증주의적 태도와 감성주의적 태도를 동시에 채용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양면적 시각은 그가 주관적 모랄리즘의 개념을 채용하여 고딕건축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라고 옹호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20세기의 합리주의는 19세기와는 완전히 다른 면을 보여준다. 실증주의적 사고에서는 논리성이 강조되는데 Viollet-le-Duc의 논문의 내용들은 항상 논리에서 시작하되 기술을 매개로 주관적 감각과 유기적 성격의 것으로 이행한다. 그는 기계를, 건축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보기는 하였지만 기계주의 미학에 물든 다른 사람들처럼 기계화가 건물의 요소 및 건물전체에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강철은 목재 또는 석재를 대체할 수 있는바 각 재료들은 성격이 서로 비슷하여 수공업적 방식에 의하여 적당한 형태로 제작하여 대체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연속적인 건축의 발전을 이루게 한 것은, 비록 물질적 혁명이 있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항구불변한 논리성과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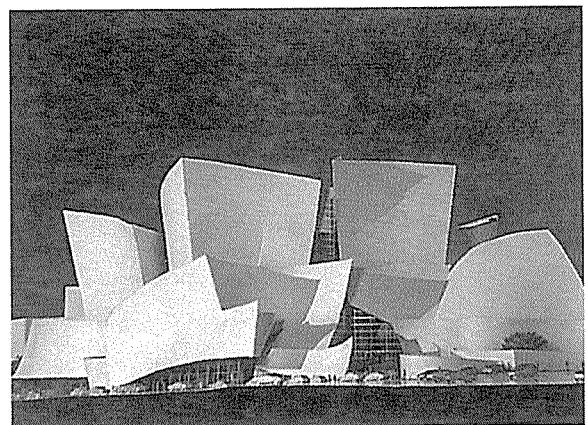
19세기 말기 및 20세기초의 미학이론, 철학, 제작, 건설 등의 끊임없는 발전은 전통적 건축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러나 구조 및 제작방

법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한 것은 바로 엔지니어링이었다. 엔지니어링 그리고 산업을 성공적으로 건축과 연결한 사람은 Hermann Muthesius이다. 그는 건축형태의 유형학(typology)이란 미학적 인식의 일반법칙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았고, 공장생산을 통한 건물의 합리화는 그것이 파괴하는데 일조를 한 예술적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새로이 재창조한다고 생각하였다.

20년대의 전위 건축가들의 대부분은 기계주의 미학에 심취하였는데 이들은 기계가 공예의 임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초미의 관심사이던 공공주택 공급 등의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였다. 산업에 의지한 공업생산적 건축은 매스의 단순화를 전제로 하며 각 요소들의 개별성, 독특성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전형성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각 부분이 레고(lego)조각과 같이 분리되고 조합, 조립될 수 있는 요소주의적 구성수법과 몽타주적 기법이 사용되어 위계적인 고전주의 건축을 부인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활동하던 Hannes Meyer, Ernst May, Mart Stam 그리고 Hans Schmidt와 같은 신즉물주의적 건축가들에게서 발견된다. Ludwig Hilberseimer의 건축, 특히 그의 도시계획 안에서는 극도의 도식화가 발견된다. 그의 작품에서는 순수한 분석작업을 위한 도식적 다이어그램 등이 실제의 건축적, 도시적 오브제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원시적인 종류의 형식주의는 올바르고 적절한 건축적 형태와 표상을 용납하지 않아 그들이 애써 추구하고 있었던 건축의 추상화를 완성치 못하고 중도에 멈추게 하고 있다.

그러나 Le Corbusier나 Mies van der Rohe의 작품에서는 도식화에 의해 발생하는 이러한 형식주의가 고전적 성향과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Le



F. Gherry: Disney Center Hall

Corbusier의 건축에서는 이전까지 고찰하여 보았듯 프랑  
스식 고전주의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는 선형  
적인 예술적 질서와 규칙을 역사주의적 전통 그리고 실증주  
의적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연속적인 진보의 개념과 조화  
시켰는데 극단적인 예가 되는 Dom-ino구조의 스케치는 차  
후에 전개될 그의 작품들의 변증법적 발전과 진화를 위한  
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Dom-  
ino의 철근콘크리트 뼈대는 데카르트가 요구하는 모든 명  
확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실이다.<sup>2)</sup> 굳더더기 없는 이 단순한  
뼈대 내에 매스 및 주택에 필요한 설비 등이 취향과 경험에  
의지하여, 또 기능과 실용적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배치  
될 수 있어서 Le Corbusier의 건축에서는 이번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합리주의의 두 가지 전통, 즉 선형적 개념의 전  
통과 경험적 전통-예술적 표현-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한편으론 데카르트식 형이상학적 사고를 감각적  
오브제들로 해석해내어 지난 호까지 분석한 프랑스 고전주  
의 건축가들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론 실증주  
의의 사고에 있어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아이디어들이 기  
능적이거나, 우발적, 우연적인 것들로 해석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유형(類型)으로 환원될 수 있어서 외형상 합리주  
의적인 건축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69년에 출판된 건축사가이자 비평가  
Charles Jencks의 논문 History as Myth는 각 거물급 건  
축사가의 성향을 '합리주의/사회적 유토피아 지향성, 합리  
주의/문화적 연출, 합리주의/사회적 유토피아주의' 등, 역  
사를 통하여 공히 존재하는 신화소(神話素: mytheme)를  
사용하여 대립시키고 비교하는 전통적인 이분법으로써 구  
분짓고 카테고리화하고 있다.<sup>3)</sup>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대  
표적인 건축사가인 Pevsner의 성향을 세분함에 있어 합리  
적 신화소에 속하는 항목은 명확성, 표준화,  
Sachlichkeit(즉물성), 사회적 책임감, 그에 대항하는 표현  
주의적 신화소의 항목으로 환상, 장식, 혼동, 예술을 위한  
예술 등으로 대립시켜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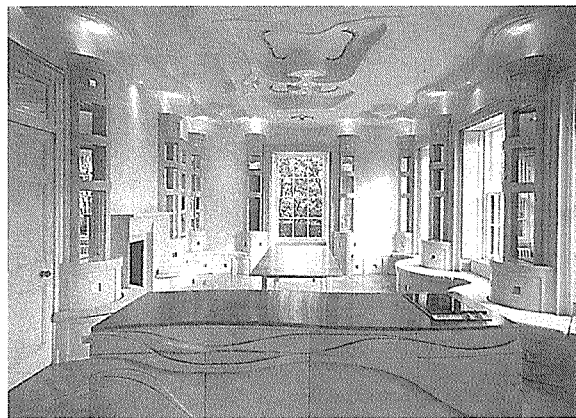
그 후 26년 후 1995년엔 완전히 색다른 개

2) Descartes는 다음과 같이 명확한 인식을 위한 4가지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 나  
의 정신에 명석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코 나의 판단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가  
의심할 수 없는 것만을 포함하겠다. 둘째로, 내가 검토하는 각각의 어려움들을 가능한 한, 그  
리고 더 잘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에서 가급적 세분한다. 셋째로, 나의 생각을 질서있게  
인도하기 위하여, 즉 인식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대상으로부터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처  
레저레 복잡한 것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우  
라도 전체적인 열거와 일반적인 검열을 실시한다 in 데카르트(김형호역): 방법서설/성찰/정  
념론 외, 삼성출판사, 1998, p. 57.

3) Jencks, Charles: History as Myth in Meaning in Architecture, Barrie & Jenkins,  
1970 (2판), pp. 244-265.

념의 내용들으로써 채워진 The Architecture of the  
Jumping Universe를 출판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예의 전  
통적인 구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히 새로운 과학적 개념  
을 사용하여, 과거에 포스트모던의 기수직을 떠맡고 그의  
전파에 나섰듯, 또 다시 새로운 예언자적인 자세로 설법하  
고 있다. 아마도 그가 지은 책들을 분석하면 현대건축의 주  
요한 발자취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언급한 책은 다분히 현대의 사상세계를 언급하고 있는  
징후적인 현상의 하나가 될 것인데 그가 언급하고 있는 내  
용들을 살펴보면 프랙탈, 카오스, 슈퍼 스트링, 나비효과,  
GAIA, Green Architecture이론 등 현대과학의 이론들로  
채워져 있다. 그를 비롯한 다수의 건축가 및 이론가들은 무  
엇 때문에 물리학에 집착하는 것일까? 과거로부터 사상계  
엔 존재론적 합리주의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현금의 분  
석적 건축가 및 이론가들은 정직하게 과학을 모방하려는 듯  
하다. 따라서 물리학자들은 길들여진 철학자들의 아침에 보  
답하고 있으며 마치 과학에 관한 저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러했듯 문화비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철학의 외피  
를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변적 영역에서는 해체주  
의가 등장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고 있어서 기  
존의 분류체계인 질서/무질서, 필연/우연의 대립개념을 허  
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대립항은 새로운 사고체계에  
서는 같은 현상의 다른 측면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지난 호까지 논의한 프랑스 합리주  
의의 순수 유클리드 기하학 형태의 건축은 어떤 위치에 놓  
여 있을까? 그 역시 현대의 물리학, 과학 앞에서 많은 변화  
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대표적인 것으로  
프랙탈, 카오스 등의 이론을 거론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공  
히 무질서로부터 질서가 탄생함을 알려주고 있어서 이에 따



Ch. Jencks: Organization Emerging in Chaos



르면 과거엔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져 도외시되었던 비 유클리트 기하학의 형태도 합리주의적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였고 건축을 비롯한 시각예술에서는 작품으로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합리성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탈바꿈되어 심각한 전대미문의 미학 및 철학적 변화와 변신이 발생하게 되었다.

건축에 있어서는 Gregg Lynn과 Peter Eisenman등이 작품에서 이러한 경향이 드러나고 있고 과거의 유클리트 기하학적 순수형태에서 떠난 소위 해체주의 계통의 부서지고 관통하며 뒤틀리는 형태도 이성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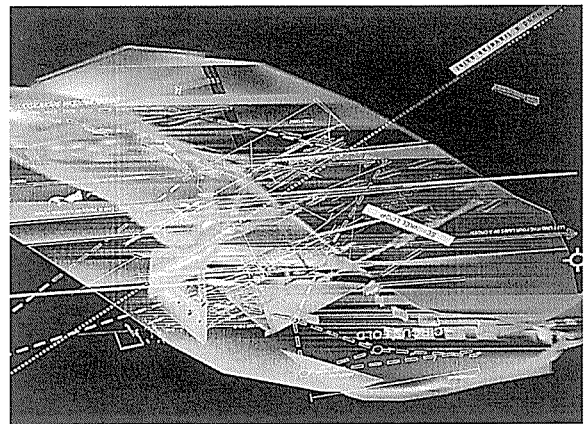
이런 점에서 일견 서양의 혼돈이론을 비롯한 제 과학적 성과가 동양의 태극이론이나 혼돈론과 유사함이 많아 보이므로 두 문화의 연결성이나 결합가능성을 쉽사리 언급하곤 한다. 그런데 동서양의 문화배경을 비교하면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프랙탈 이론의 창시자인 Benoit Mandelbrot(브누아 망델브로)가 그의 저서 가운데 'entre le domaine du désordre incontrôlé et l'ordre excessif d'Euclide, il y a désormais une nouvelle zone d'ordre fractal (제어되지 않은 혼돈의 영역과 유클리드의 과도한 질서 사이에 이제부터는 프랙탈 질서의 새로운 지역이 존재한다)'<sup>4)</sup> 라고 언급함은 아마도 서양식 가르기 작업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고 동양사람들이 생각하는 태극의 이론, 윤희적 사상과는 전혀 다름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의견상 같아 보이는 문화현상, 건축적 이념, 형태와 공간 등도 문화배경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미 20세기말에는 예의 새로운 합리성 등이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구체적인 건축물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론과 실체가 완전히 결합되어야 한다는 서양사람들의 사고는 언제나 유용히 전개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변적 합리성에 입각한 이념주의적, 이론적 건축으로 말미암은 형태적 중요성과 표현성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다. 관념적 차원에서의 합리성이 아주 중요함은 일언반구의 여지도 없지만 기본적인 차원의 가능과 효율성 등의 보장은 언제나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항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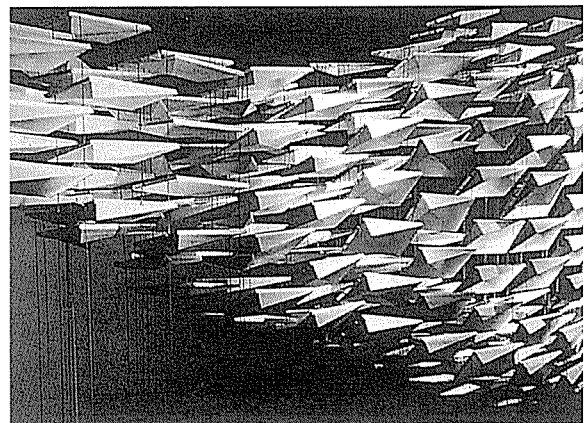
4) Mandelbrot, Benoit: Les Objets fractals(프랙탈의 오브제들), Champs/Flammarion, Paris, 1995, p. 10.



G. Lynn: Cardiff Bay Opera House



Elenberg etc.: Schinkel Loop, Berlin



다용도전시 시스템-조각